

2018년 12월 7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 성공 중국 상무부, “화웨이 문제 불구 무역협상은 낙관적”

###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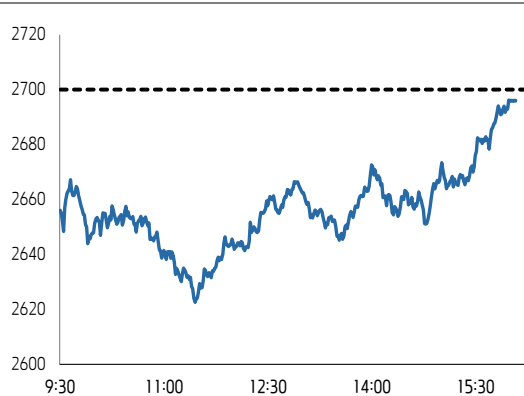
미 증시는 화웨이 CFO 체포를 두고 미국과 중국간 마찰이 부각되며 한 때 2% 넘게 하락. 특히 국채금리 하락과 국제유가 부진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악재성 재료 유입되며 하락폭을 확대. 그러나 아마존을 비롯한 일부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하자 나스닥은 상승 전환 성공(다우 -0.32%, 나스닥 +0.42%, S&P500 -0.15%, 러셀 2000 -0.22%)

미 증시는 산업재,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악재성 재료가 유입되며 하락. 산업재 업종은 화웨이 CFO 체포소식이 전해지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자 매출 출회. 금융업종은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자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며 부진.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헬스케어 업종은 아마존이 오늘부터 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 애플에 대해 UBS 가 아이폰 판매 둔화를 우려해 목표가를 하향 조정(225 달러→210 달러) 한 점도 미 증시 하락 요인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은 체포된 화웨이 CFO 의 보석허가 여부(7 일)에 따라 변화가 가능. 또한 미국과 중국 정부가 12일부터 시작하는 실무협상에 대해 ‘낙관적’ 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관련 우려가 확산될 여지는 많지 않음. 한편, 금융주 급락을 불러온 국채금리 하락은 전일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에서 보듯 여전히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금리하락이 지속될 여지 또한 많지 않음. 아마존의 온라인 약품 판매 및 애플의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도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라 부정적인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국제유가는 OPEC 정례회의에서 감산논의 규모가 100 만 배럴에 그쳤고, 이란이 감산 예외를 주장하자 협상 난항 우려 부각되며 급락. 다만,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해 감산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 달라스 연은이 세일오일 기업들은 가격 하락과 병목 현상을 감안 생산량을 현재 수준에서 크게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미국의 산유량 증가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제유가 하락은 제한 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068.69	-1.55	홍콩항셱	26,156.38	-2.47
KOSDAQ	678.38	-3.24	영국	6,704.05	-3.15
DOW	24,947.67	-0.32	독일	10,810.98	-3.48
NASDAQ	7,188.26	+0.42	프랑스	4,780.46	-3.32
S&P 500	2,695.95	-0.15	스페인	8,764.50	-2.75
상하이종합	2,605.18	-1.68	그리스	652.04	-0.74
일본	21,501.62	-1.91	이탈리아	18,643.83	-3.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하락 주도

애플(-1.11%)은 UBS가 아이폰 판매 둔화를 이유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큐로브(-2.24%), 스카이웍(-0.21%) 등 부품주들도 동반 하락 했다. JP모건(-1.90%), BOA(-2.09%), 웰스파고(-1.33%) 등 금융주는 국제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엑손모빌(-1.31%), 코노코필립스(-0.46%), EOG리소스(-1.86%)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보잉(-3.09%)은 무역수지에서 무역분쟁 여파로 항공관련 수출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했다. 캐터필라(-0.73%) 등 산업재 업종도 동반 하락 했다. CVS헬스(-2.97%) 등 헬스케어 업종은 아마존(+1.85%)이 약품을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아마존의 상승에 힘입어 알파벳(+1.47%), 페이스북(+1.23%), 넷플릭스(+2.74%) 등 FANG 기업들은 동반 상승 했다. 브로드컴(-2.07%)은 장중 하락 했으나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 외로 6% 넘게 급등하고 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18%	대형 가치주 ETF	-0.59%
에너지섹터 ETF	-4.71%	중형 가치주 ETF	-0.20%
소매업체 ETF	-0.57%	소형 가치주 ETF	-0.36%
금융섹터 ETF	-1.46%	배당주 ETF	-0.60%
기술섹터 ETF	+0.22%	변동성 ETF	+2.1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0%	대형 성장주 ETF	+0.22%
인터넷업체 ETF	+1.44%	중형 성장주 ETF	+0.06%
리츠업체 ETF	+2.74%	소형 성장주 ETF	-0.15%
주택건설업체 ETF	+0.87%	신흥국 고배당 ETF	-0.24%
바이오섹터 ETF	+0.16%	신흥국 저변동성 ETF	+0.13%
헬스케어 ETF	-0.38%	하이일드 ETF	-0.43%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01%
반도체 ETF	-0.59%	Long/short ETF	+0.9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4.39	-1.77%	-2.14%	-7.12%
소재	331.81	-1.36%	-1.77%	-3.54%
산업재	584.93	-0.55%	-2.80%	-3.43%
경기소비재	843.47	+0.61%	-0.93%	-1.59%
필수소비재	565.95	-0.10%	-0.95%	-2.07%
헬스케어	1,072.97	-0.31%	-0.82%	+2.45%
금융	423.23	-1.44%	-5.49%	-5.16%
IT	1,170.88	+0.23%	-1.50%	-3.41%
커뮤니케이션	146.77	+1.04%	-1.28%	-2.34%
유틸리티	283.32	-0.10%	+2.33%	+2.88%
부동산	212.51	+2.66%	+2.84%	+5.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부정적인 요인 완화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0.77% MSCI 신흥 지수는 0.9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907 계약)에 힘입어 0.25pt 상승한 267.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은 1,117.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무역 협상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개별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하락 했다. 그러나 아마존을 비롯한 일부 대형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하며 나스닥이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더불어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 했으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화웨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무부가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이라고 언급 한 점, 미국 정부 또한 화웨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반면, 국제유가가 OPEC 정례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급락한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의 원유재고가 감소로 돌아섰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무역분쟁 실무협상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부정적인 요인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다음주 11 일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메이 총리가 가장 반발이 심한 조항인 '안전장치'에 대해 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식 또한 긍정적이다. 여기에 반도체 업종이자 애플 부품주 중 하나인 브로드컴이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 외로 6%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서비스업지수 개선

11 월 미국 ADP 민간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전월(22.5 만건) 보다 감소한 17.9 만 건에 그쳤다.

10 월 미국 무역수지는 555 억 달러 적자로 전월(-546 억달러) 보다 적자폭이 증가 했다. 수입은 전월 대비 0.2% 증가 했으나, 수출이 0.1%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무역분쟁으로 대두 수출과 항공관련 제품 감소가 수출 감소 요인이었다.

11 월 미국 ISM 서비스업 PMI 는 전월(60.3) 보다 개선된 60.7 로 발표되며 예상치(59.2) 보다 개선 되었다. .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하락폭 축소

국제유가는 OPEC 이 감산 규모를 100 만 배럴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130~140 만 배럴을 하회한다는 점이 부담이 되었다. 더불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에 동의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라고 언급 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EIA 가 지난주 원유 재고가 732.3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하자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화웨이 CFO 체포에 따른 무역분쟁 우려감이 부각되었으나 여전히 미국과 중국 정부는 협상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의회 표결을 앞두고 메이 총리가 논란이 일고 있던 일부 조항에 대해 의회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무역분쟁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 영향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은 무역분쟁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둔화 및 주식시장 부진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2 년물이 10 년물보다 하락폭이 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축소되었다. 한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경기 과열 신호를 보지 못했으며 거시 경제지표 악화 또한 보지 못했다” 라고 주장 했으며 금리와 관련해서는 “중립금리에 가까워 지고 있다” 라고 언급한 점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 였다.

금은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위축 되며 매물 출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7%, 철근은 2.26%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1.49	-2.65	+0.08	Dollar Index	96.743	-0.34	-0.04
브렌트유	60.06	-2.44	+0.25	EUR/USD	1.1383	+0.34	-0.09
금	1,243.60	+0.08	+1.07	USD/JPY	112.65	-0.48	-0.73
은	14.509	-0.50	+0.74	GBP/USD	1.2786	+0.41	-0.04
알루미늄	1,936.00	-1.68	-0.21	USD/CHF	0.993	-0.47	-0.31
전기동	6,070.00	-1.70	-2.29	AUD/USD	0.7234	-0.47	-1.16
아연	2,593.00	-0.95	+4.98	USD/CAD	1.3376	+0.16	+0.71
옥수수	382.75	-0.39	+2.55	USD/BRL	3.8825	+0.43	+0.78
밀	515.50	-0.48	+1.53	USD/CNH	6.8761	+0.24	-0.86
대두	909.50	-0.44	+2.51	USD/KRW	1120.30	+0.56	+0.10
커피	105.95	0.00	-5.65	USD/KRW NDF1M	1117.50	+0.43	+0.07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90	-2.35	-13.97	스페인	1.458	+0.20	-4.70
한국	1.982	-5.30	-13.20	포르투갈	1.808	+1.60	-2.00
일본	0.064	-0.20	-1.80	그리스	4.235	+10.00	-1.80
독일	0.236	-4.10	-8.50	이탈리아	3.199	+14.10	-0.30